

2020년 9월 2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8편 1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38편 15절)

◎ 찬 송 / 543장(통342) 어려운 일 당할 때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3~17절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말씀선포 / 전신갑주 07 - 믿음의 방패

네 번째 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로마 군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입니다. 다른 갑주들도 방어를 위한 것들이지만, 투구, 호심경 및 허리띠 등은 모두 일단 방패를 통과해버린 공격이 군인의 몸에 타격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반면, 방패는 적의 공격 자체가 군인의 몸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긴 방패와 손 방패입니다. 헬라어로도 긴 방패와 손 방패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쓰인 방패는 긴 방패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튀레오스”이며 그 단어의 어근은 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긴 방패는 마치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방패는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그 자체의 기능 외에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힘을 모은다.” 혹은 “힘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방패를 집어 들다.”라는 “아날라본테스 톤 튀레온”이라는

말은 상징이라기보다 실제적인 움직임을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집어 드는 행동은 당시의 방패도 전투에 요긴하게 쓰이는 전술 즉 방패술이 보여주는 특별한 의미가 포함 되어 있기에, 이 방패술의 의의를 바로 파악해야 본문의 내용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패는 고대 전투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갑주였습니다. 특히 군대 전체가 한 몸처럼 방패 전술을 수행하면, 방패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방패를 리듬에 맞추어 병사 전체가 한 몸처럼 다루는 훈련을 했는데, 군대 전체가 진열을 갖추어 방패로 적의 화살 혹은 창과 칼의 공격을 한 몸처럼 방어하고, 이후 한 몸처럼 방패를 동시에 열면서 창을 뺀어 상대를 찌르거나, 활을 쏘 공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군대는 마치 한 몸인 듯 일사불란하게 이 동작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하고 힘썼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방패는 한 군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가 되어 전쟁을 하는 단체전을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는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써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실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단체전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이 때에 믿음은 결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믿음이라는 방패로 하나 되어 함께 싸우는 믿음의 군사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패에 대한 설명에는 다른 갑주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형식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방패의 용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직접 설명해 줍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 했습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발, 투구 및 검의 용도는 특별한 설명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패에 대해서는 분명 **16절에서 “불화살을 소멸한다.”** 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방패의 용도를 군대끼리 서로 접촉하면서 전투하는 상황이 아니라 화살 공격을 방어하는 상황에 한정해서 설명합니다. 빗살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막기 위해 개인이 혼자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하나가 되어 순간적으로 거북이 등처럼 방패를 들어서 앞과 옆 그리고 위를 방어하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불화살은 악한 자의 간계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전투에서 불화살이 사용되었고, 이것은 나무로 만든 방패에 치명타를 입히는 공격이었습니다. 당시의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 방패에 불화살이 꽂히면 방패가 불에 타서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시대의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나무 방패는 그저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방패 면에 질긴 가죽을 밀착시켜 화살촉이 나무 방패에 꽂히지 못하게 하는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무방패에 불화살이 꽂히면 방패는 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이 마귀의

간계를 상징한다면, 이것은 상대를 위협적으로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서의 속성과 또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쏘아대는 공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모든 불화살”이란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면 적군이 아군의 방패를 제거하는 것은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를 주려면 방패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방패가 제거된 군인의 생존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더라도 방패가 불을 소각해 버린다면, 불화살은 보통 화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주력 무기인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자마자 방패에서 소각되는 것을 본다면 적은 놀라 혼비백산할 것이고, 반대로 아군의 사기는 충천할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많이 알고, 공부를 하며,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배우고 아는 것, 오랜 신앙생활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문을 따라 믿음을 방패라는 감주로 접근하면 삶에 적용되는 믿음, 곧 악한 자의 공격을 일차적으로 방어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국 성도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요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며, 서로를 지키고, 이 시대 예수의 진리를 파수하여 더욱 믿음의 강건함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결코 혼자 방패로는 수많은 대적의 불화살을 모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가 믿음의 하나 됨과 또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모여 훈련하고 연습하며 배워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왜 함께 하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것을 통하여 이 시대 참된 진리인 예수를 증거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 깊은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서로를 세우며,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545장(통344)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 폐 회 / 주기도문